

#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 어떻게 달라졌나?

### 공 세 권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수석연구원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인간은 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염원해 왔다. 그것은 건강이나 수명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이와 같이 인간의 염원을 어느정도 해결해 주기 시작했다. 과학이 발달되

지 못한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출생 초기에 죽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또 어떤 질병으로 알게되면 치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망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이나 죽음같은 것은 일종의 숙명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치료하는 기술도 급격히 발전되어 원만한 병이면 거의 모두가 치료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종래까지 출생초기에 죽는 영아사망율(嬰兒死亡率)도 급격히 떨어졌는가하면 평균수명도 크

게 신장되었다.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출생 후 똥이 되기전에 죽는 영아사망은 출생 1,000명당 약 350명을 초과했고, 평균수명은 30세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영아사망율이 약 150수준으로 떨어졌고, 평균수명은 40세를 넘게 되었다. 이러한 영아사망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최근에 이룰수록 급격해져서 1960년대 초기에는 영아사망율이 60내외로, 그리고 평균수명은 50세를 웃돌게 되었고, 또 1980년에 와서는 영아사망율이 30내외로 저하되었는가 하면 평균수명이 약 65세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에 죽게되는 비율도 크게 늘어나서 최근에는 약 66%(2/3)가 50세를 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그만큼 인간생활에서 건강요건이 향상된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건강요건이란 인간이 일종의 생명체로서 그 생명체가 보호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뜻한다고 본다. 그것은 영양개선에서부터 생활환경의 호조, 그리고 생명체의 위험요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傷害)로 부터의 예방이나 치료 방법 등을 총칭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의 요건개선이나 인간수명의 연장은 사회경제적인 요건

이나 생명과학의 발달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겠다.

인간이 얼마나 오래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1825년 「벤자민 컴퍼즈」(Benjamin Compertz: 1779-1865)에 의한 「G곡선」이라 불리는 사망법칙에 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의 이론은 최근에 와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이론에 의해서 추정된 인간의 최대 평균수명은 남자가 84.1세, 여자가 92.0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도 없다.

어떻든 인간은 언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죽게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늘 피상적인 것 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다. 또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도 늘 건강이나 죽음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며, 또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도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망력이나 사망원인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전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을 연구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전까지만 해

도 전염병 또는 기생충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고, 이러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외 성행되었던 질병으로는 소화기계통이나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많았고, 따라서 이들 질병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6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질병의 분포는 다소 완화된 추세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질병의 분포와 사망원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특정 질병의 발생분포가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사망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의료보험에 가입된 대상자의 질병의 치료분포를 보면 1980년에 약 1천만명의 치료환자 중 약 48%가 호흡기계 환자였으며, 약 17%는 소화기계 환자로서 이들이 전체 치료환자의 약 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질병은 유년층에서 집중된 분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도 사망신고서에서 나타난 사망원인을 보면 전체 사망자 중에서 순환기계 질환 즉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으로 죽는 비율은 약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사고나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18.0%, 그리고 신생물, 즉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사망자 중 64%가 이들 질병으

로 사망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원인으로 죽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서 사고 및 중독사의 경우는 활동성이 많은 유년층과 장년층에서 높은 분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높은 사망원인은 호흡기계 질환(20.4%)이나 소화기계 질환(17.3%) 그리고, 전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12.8%)이였고 그의 증상을 알수없는 질환(22.4%)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망원인의 변화는 치료가능한 질환이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보건사업이 확대됨으로서 치료되는율이 높아진데 있고, 또 성인들에게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에서 사망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최근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각국의 사망구조를 보면 일본의 경우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3%를 차지하고, 신생물 즉 암으로 죽는 환자는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약 2/3가 이 순환기계질환과 암으로 사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및 중독사는 일본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약 7.3%를 차지하고 미국은 약 8.3% 수준으로서 우리나라보다 1/2 이하인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고사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안전대책이 미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의 사인구조도 이제 선진국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성인들에서 나타나는 순화기계질환이나 암의 퇴치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 관심점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들 질환은 식생활이나 생활관습, 그리고 환경 조건 등의 변화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건강관리 문제는 종래의 전염병관리와 같은 질병발생에 따른 대응책 보다도 출생후부터 계속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의 확대와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보건의료체계를 개발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누구나 다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발 이외에도 이제는 국민 각자가 취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칙과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국

민보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뉴스 스팟 ●

### 寄協人事

2월 9일자(號호안은 전지)

#### ◆부·실·국장급

본부 감 사 실: 손 차 봉  
(충남지부 사무국장)  
서울지부 사무국장: 서 기 용  
(본부 감사실장)  
인천지부 사무국장: 한 상 진  
(강원지부 사무국장)  
강원지부 사무국장: 임 용 직  
(서울지부 사무국장)  
충남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김 치 수 (전남지부 사무과장)

#### ◆과·소장급

본부 총무과 총무과장: 성 정 홍  
(본부 감사부 조사연구과장)  
본부 감사부 조사연구과장: 인 용 복  
(본부 총무부 총무과장)  
본부 감사부 감사과장: 윤 영 식  
(본부 감사부 주임기사)  
경남지부 사업과장: 김 창 현  
(서울지부 홍보관장 직무대리)  
충북지부 감사소장: 박 명 성  
(부산지부 감사소장)  
인천지부 감사소장: 홍 광 선  
(경기지부 주임기사)  
충남지부 감사소장: 황 인 수  
(충북지부 감사소장)  
부산지부 감사소장: 손 진 생  
(충남지부 감사소장)  
전남지부 사무과장: 조 수 남  
(전남지부 사업과장)  
전남지부 사업과장: 김 연 수  
(경남지부 사업과장)  
인천지부 사무과장: 문 익 수  
(신 규)

#### ◆주임급

본부 총무부 주임: 허 윤 영  
(본부 총무부 서기)  
대구지부 주임: 박 준 영 (경북지부 서기)